

## 우도 어촌의 성립과 변천과정\*

강 만 익

### 요 약

도시지역의 어촌은 어떤 경로를 거쳐 성립되고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어촌인 우도를 사례로 한 것이다. 제주도에 거주하던 이주민들이 지역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농경지 개척허가(1842년)를 시작으로 우도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창출시킨 촌락의 구조적 특성과 경제활동을 분석한다. 농촌에서 출발한 우도는 패조류에 대한 수요증대와 천초의 상품화로 인해 우도 해녀의 활동이 남동해안의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천초채취를 중핵으로 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어촌으로 발달하여 어촌으로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났다. 인구유입이 증가되어 우도 어촌은 평탄지를 따라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12개 촌락, 3500 여명이 거주하는 촌락으로 성장하였고, 1970년대부터 형성된 신흥취락인 중앙동에 중추적 기능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상가형성이 이루어져 1980년대에 들어 면으로 승격되어 면치취락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계속된 인구감소 현상은 패조류 채취와 관련된 공동체적 규제와 해녀의 질양적 감소를 유발하여 어촌경제의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폐가의 발생과 가옥규모의 축소를 통해 가옥구조의 변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 본 논문은 필자의 1993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논문인 “도시지방의 어촌에 관한 연구-제주도의 우도를 사례로-”를 수정·요약한 것이다. 현지답사에 도움을 주신 우도 면민들과 제주대 사회교육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 1. 연구목적

어촌은 해안과 도서지역에 입지하고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최길성, 1992 : 54) 어민들이 어촌계를 구성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촌락이다. 어업이 농업에서 분리된 정도에 따라 主農從漁村·半農半漁村·純漁村으로 분류되나 모두 어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柿本典昭, 1987 : 1), 유동성이 강한 해양에 생업기반을 두고 있어 계획생산이 어렵고,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절성 때문에 불안정한 생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촌을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인 패조류 채취업에는 공동체적 규제가 존재하여 어민들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킨다.

어촌의 공동체의식은 공동노동의 필요성과 공동어장의 존재 그리고 낙도·벽지에 위치한 경우 지리적 고립성으로 통합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광순, 1987 : 127-128). 이러한 어촌에서는 최근들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노력으로 관광과 어업을 겸하는 관광어업이 도시주변의 臨海漁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한대현, 1976 : 251-304), 어장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增養殖漁業도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牛島를 사례로 도서지역의 촌락성립과정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지역현상인 인구구조·생산구조·가옥구조를 지표로 어촌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구명함으로써 우도 어촌의 지역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도서어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도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도서어촌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생활이 해양·경지·가옥 등 제요소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으므로 촌락의 변화를 촌내외에 걸쳐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취락지리학(geography of settlement)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오흥석, 1983 : 20-41), 촌락의 성립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해방이전과 해방이후로 구분하였다. 해방이후에는 인구유입이 본격화되어 농어업조직이 체계화되고, 교육·행정·상업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경관변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촌락성립 이전의 牛島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南사錄」·「耽羅巡歷圖」·「濟州三邑地圖」 등을 토대로 당시의 지리적 상황과 제주도와의 교통관계를 분석하였으며, 「韓國水産誌(1911)」와 1 : 50,000 地形圖(1918)를 가지고 촌락의 성립과정을 파악하였다. 해방이후의 牛島에 대해서는 「北濟州郡誌」·「舊左邑誌」·「濟州島部落誌(III)」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촌락기능시설이 입지과정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경지형태 그리고 垆地가 경지로 전용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 : 25,000, 1 : 5,000 지형도와 1 : 1,200 지적도를 활용하였다.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어로어업과 패조류 채취업(나잠업) 그리고 농업의 생산구조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패조류와 농산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였다(佐藤甚次郎, 1972 : 18-58). 또한 우도 전지역을 답사하여 가옥배치형태와 間構造를 지표로 가옥구조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 II. 牛島 어촌의 성립과정

### 1. 해방이전의 어촌

촌락성립 이전인 18C 우도의 모습은 고지도에 나타나 있다. 「耽羅巡歷圖(1702)」에는 말을 관리하기 위한 목자와 보인이 23명, 말이 262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민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촌락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도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왜선잠입이 빈발하여(김희동(역), 남사록, 1992 : 164) 거주지 기피대상이 되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濟州三邑地圖」에는(비변사, 1747-1750년) 도서명(牛島), 포구명 그리고 우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로가 나타나 있다. 포구로는 獨津浦·曲分浦·朱郁浦가 기록되어 있고, 우도와 상도리·하도리·별방리를 연결하는 해로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이들 포구들이 우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牛島로의 개별적인 인구이동은 17C에도 해산물 채취를 위한 간헐적이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이동은 헌종 8년(1842년)에 내려진 농경지 개척허가부터로 볼 수 있다. 즉 1842년에 내려진 농경지 개간허가(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435)가 지역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여 인구유입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기능을 중심으로 출발한 원초적 단계의 촌락이 성립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촌락성립의 토대를 마련한 유입민들의 기원지는 현재의 구좌읍지역 즉 종달·하도·함덕·조천·세화 등이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과 우도해안에서의 관행적인 해산물 채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척초기에 최초로 촌락이 성립된 장소는 고대의 지식묘와 조선후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들이 해안일대를 중심으로 산포되는 것으로 보아(이청규·강창언, 1993) 해안일대로 볼 수 있다. 특히 符船(테우)이나 범선과 같은 무동력선이 주요한 해상이동 수단이 되었던 이

주초기에는 조류가 해상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진술, 1992 : 163) 조류흐름상 제주도과 對岸的 위치에 있는 서천진동 지역이 최초의 촌락성립지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도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장소라는 의미의 “드렁구지”가 해안지명으로 남아있으며, 조선후기의 유물들이 분포한다는 점, 그리고 입도 6~7대의 高氏가 집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 준다.

1900년에 들어와 토지경제에 의존하던 농민들이 해양에서 생업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농민층이 어민화되었으며, 특히 해녀들의 출몰이동이 중요한 지역현상으로 등장하였다. 도서명이 “소섬”(牛島)에서 演坪으로 개칭되어(1900년) 학교명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1904년에는 가옥이 140 가구로 증가하였고, 총 679명(여 : 384명)이 거주하였다(三郡戶口家間總冊, 1904년). 연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촌락이 평탄지를 선택하여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1911년 경에는 천진동(천초동)·상·하우목동·전흘동·비양동·고수동·후해동 등 7개 촌락이 성립되었고, 430호가 분포하여(조선총독부 농공상부, 1911 : 438) 1904년에 비해 290호가 증가하였다.

1918년에는 삼양동(“주옥동”)과 주홍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조선총독부 측지부, 1918; 泉靖一, 1971) 이들 촌락은 성립시기가 비교적 늦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초기에 형성된 小村들은 서안지역이 동안지역에 비해 촌락형성과 파생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서안지역이 제주도와 대안적 위치에 해당되어 접근도가 높아 정착에 유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농경지 개척과 해산물 채취라는 경제적 요인이 인구유입을 자극하여 1921년에는 441가구, 2,364명으로 1904년에 비해 301가구, 1,685명이 증가하였다(부영성, 1986 : 67). 1930년대부터는 성산포와 동천진동을 연결하는 수로에 동력선이 도입되어 교통수단의 변화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단서가 마련되었으므로 포구기능이 첨가된 동천진동이 소지역 중심지로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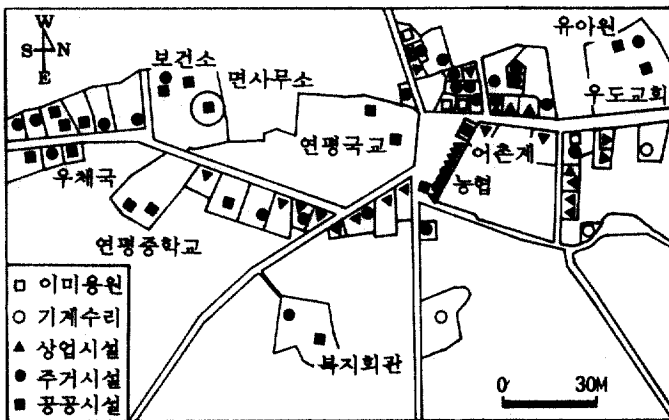


중학교(1954년)는 우도민의 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들어 어업조직으로 제주어업조합 연평지소가 세워져 어부들과 해녀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우도 중심부에 행정서비스 시설들이 입지함에 따라 가옥들이 형성되어 新興聚落인 중앙동이 설촌됨으로써 상가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어업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어업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동천진동 포구가 제2종어항으로 승격되어(1972년) 어업발전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촌락별로 존재해왔던 어업조직들이 우도 법인어촌계로 통합되면서(1978년) 수산활동에 편중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인구의 점차적 감소에도 面으로 승격되어(1986년) 面治聚落으로 격상된 결과 면소재지인 중앙동에는 상업시설, 공공시설, 서비스 시설이 집중되어 11개 촌락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中心聚落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그림 2〉 참조), 1992년 현재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상업시설들의 생존기간이 짧고 잡화점식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림 2〉 중앙동의 기능시설 분포



### III. 牛島 어촌의 변천과정

#### 1. 인구구조의 변화

어촌의 기능을 담당하는 총인구는 1973년 3,550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하나 1978년을 기점으로 인구전출이 초과되어 1993년에는 2,224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당 인구수 역시 1973년 5.2명에서 1993년 현재는 3.5명으로 그리고 가구수도 687가구에서 629가구로 감소하였다. 여성이 1,179명, 남성이 1,045명으로 성비가 88.5인 여초지역이다. 1993년 현재의 인구수는 면단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에 근접하고 있어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경우 면승격 이전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표 1〉 리별 가구수와 인구수

가구·인구 리/년도	가 구 수			인 구 수		
	1973	1993	증 감	1973	1993	증 감
천진리	174	142	-32	920	487	-433
서광리	121	128	+7	620	458	-162
오봉리	215	208	-7	1,130	746	-384
조일리	177	151	-26	880	533	-347
우도면	687	629	-58	3,550	2,224	-1,326

리별 인구수의 감소는 197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인구전출 증가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구감소율이 적은 것은 離村形態가 가구의 감소보다는 가구원의 감소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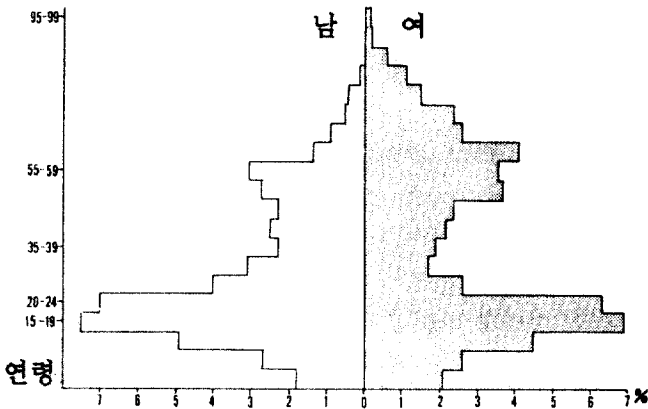
한편, 인구전출은 노동력의 질량적 변화와 연령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력의 질적 감소는 20~30대 연령층의 전출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으며, 1970년대에 비해 문화생활이 향상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자연조건과 교육환경의 문제로 이촌하고 있어 인구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강남주, 1991 : 65).

연령구성은 사망력·출산력·인구이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John I. Clarke, 1972 : 66) 우도에서는 인구이동 중 인구전출이 인구구성에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 우도의 연령별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구성은 1985년에 비해(조맹수, 1986 : 203) 유년층·청소년층·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이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性比로 볼 때 청년층은 131.7로 남초현상을 보이지만 노년층은 24.3으로 극심한 여초현상을 보여 어촌의 고령화, 부녀자화 현상을 입증해 주고 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전입인구(993명)보다 전출인구(1,495명)가 많았다. 이동에 편리한 단독전출이 전체의 80.2%를 차지하며, 여자단독전출(44.8%)이 남자보다 많았다(우도면 전출대장(1993. 1-9. 30)을 분석). 전출연령으로 볼 때 20~34세 연령층이 68.

9%를 차지하여 청년층에서 인구전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전출은 국민학교 재적학생수 감소에 영향을 주어 1978년에 628명이던 학생수가 1993년에는 190명으로 69% 감소되었다(연평국교 학교요람: 1978-1993년).

전출지역은 제주도내 지역이 53%, 도외지역이 47%가 된다. 제주도외 지역 중 전출이 집중되는 곳은 경남지역과 影島를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이다. 조선말기부터 경남해안과 부산 영도일대가 우도해녀들의 出陸(嫁) 지역이었고, 어선의 조업과 관련된 왕래가 많아 移住民들이 많았던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구이동은 유동체이므로 인구전입도 이루어진다. 남해 도서지역의 어촌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장년층과 전출하여 거주했던 노년층이 재전입하고 있다.

## 2. 생산구조의 변화

반농반어촌의 지역구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산활동의 동태(石井英也, 1992: 11)는 농어업의 생산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반농반어촌인 우도에서는 어업과 농업의 겸업비율이 6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도서지역의 공통적 현상이다(신순호, 1983: 339). 그러나 어로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17.4%에 불과하여 도서라는 천혜의 어장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패조류 채취업의 우세로 어로어업의 발달이 정체되고 있다.

### 1) 어로어업

어로어업은 해상활동에 필수적인 어선에 의존하여 어류를 어획하는 생업형태로, 동력선 42척, 무동력선 5척으로 1973년에 비해 무동력선이 감소한 반면 동력선이 질양적으로 증가하여 가동물의 향상과 조업시간의 증가를 가져와 1억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1992년).

그러나 대부분 소형어선이므로 어선운영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어선세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성산포항에 어업부대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우도항에는 어류저장 시설이나 어선 수리점이 없어 어로어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결국 어선수가 적어 선단형성이 되지 못함과 동시에 어로어업 종사자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원양어업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어선운영은 선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선주1인 운영형태가 많다(29척). 특히 선주1인 운영형태는 암석해안과 灣이 발달하여 어업에 유리한 오봉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동업운영은 자본능력과 어로기술을 구비한 사람들 간에 동업관계를 맺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18척이 동업으로 운영되며, 이것은 인구감소와 자본부족이라는 사회·경제적 강제요인에 대한 적응방법으로 볼 수 있다(박경용, 1992 : 210).

어선의 出漁海域은 동력선이 도입된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남해안으로 공간적인 확대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인구전출과 전업자의 증가로 출어해역이 제주도 연해로 축소되었다.

지형과 조류를 이용한 어구를 고안하여 작업에 활용하는(김일기, 1988 : 11) 어로방법에는 網漁業과 釣漁業이 있다. 1992년에는 망어업이 42건으로 33%, 조어업이 85건으로 67%를 차지하여 최근에 오면서 조어업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현상은 인구감소에 따른 선원부족에도 1인작업이 가능하고, 냉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선어로 판매해야 유리한 어업환경 때문이다.

하고수동에서는 1970년대까지 사질해안에 적합한 후릿그물을 이용해 地引網을 행하였다. 반면, 암석해안이 발달한 주흥동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영향을 주는 동계를 제외한 5월에서 11월까지 定置網을 설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암석해안에서는 “원담어업”(石防簾漁業)을 하였다. 수심 1m 이내의 해안에 石堤를 원형으로 축조하여 멸치·고등어·농어·생치 등을 포획하였다. 그러나 집어등을

달고 조업하는 어선들이 등장하여 해상에서 어류를 어획하자 석제기 능이 점차 상실되었다.

한편, 魚類는 수은, 수심, 해류, 해안지형 등 환경조건과 섭식조건에 따라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오홍석, 1983 : 295) 漁期의 제한을 받는 계절적 노동의 분배는 해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오징어·갈치는 7월~10월에 연승어선을 이용해 그리고 갯돔은 4월~8월 중에 채낚기 어선으로, 자리돔은 3월~8월 중에 유자망에 의해 어획한다(〈표 2〉 참조).

〈표 2〉 어업의 노동캘린더

종류/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징어							←	→				
갈치							←	→				
돔			←	→								
갯돔				←	→							
자리돔			←	→								
한치						←	→					
멸치			←	→								
천초				←	→							
툇		←	→									
미역			←	→								
감태						←	→					
도박				←	→							
소라	←	→							←	→		
전복	←	→							←	→		
성게				←	→							

## 2) 패조류 채취업

우도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패조류 채취업(나잠업)의 주체인 해녀는 1973년 896명이었던 해녀수가(제주대 국문학과, 1973) 인구전출,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업자의 증가로 인해 현재에는 540명으로 해녀의 격감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해녀는 암석해안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비양동·동천진동·영일동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으나 20~30대 해녀수가 20명 내외에 불과한 반면 40~60대 연령층이 500 여명 정도로 1970년대에 비해 고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패조류 채취의 공동체적 성격

패조류 채취는 漁村共同體의 물적 존립 기반인 제1종 共同漁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촌의 공동체적 성격은 입어관행, 공동어장의 공동소유와 공동관리 그리고 공동의례(잠수굿) 및 패조류 채취·분배방식에서 공동체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촌락유지의 경제적 토대인 공동어장은 慣行에 의해 촌락별로 구획되어 뚜렷한 어장분화를 보이며, 專用漁場의 경계선을 놓고 漁場分爭이 발생하기도 했다(조맹수, 1986).

패조류의 채취는 엄격한 공동체적 규제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경제활동으로 농경과의 노동력 경합이 나타나고 있다(中村和郎 외, 1991 : 98). 공동체적 규제는 패조류의 亂獲을 방지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하여 촌락민 전체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이다(石井英也, 1992 : 13).

공동어장의 입어는 종래의 관행에 따라 공동어장에 참여하여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入漁權(고상룡, 1967 : 19)을 얻어야 하는데 우도에서는 입어자격으로 屬地主義를 원칙으로 한다.

〈표 3〉 우도의 동별 입어조건

동 별	①기본거주기간	② 동가입조건	③ 입어자격 부여
상 우 목 동	6개월	里政稅 납부	1인당 동수의 배당금액+ 잠수회가입비
하 우 목 동	6	본민주택 소유	(동공금1/30+동자산)÷가구수* 총회에서 자격심사
동 천 진 동	6	洞加入費 납부 재전입자, 유연 고자 면제	동자산÷가구수*
서 천 진 동	6	入洞費 납부	(동공금+동자산)÷가구수*
비 양 동	3	入參費 납부 (가구당 250만원)	1개월이상 비거주시 퇴참시켜 입어권박탈, 입어로 150만원 납부(유연고자 면제)
하 고 수 동	6	본민주택 소유 洞加入費 (가구당 20만원)	입어로 30만원 납부
전 흘 동	6	定款費 납부	(기준금액**+동자산)÷가구수* 재전입자는 어장 잡초 제거비용만 납부함.
삼 양 동	6	定款入籍費는 총회결정: 해녀 능력 고려	(동자산+동공금)÷가구수*

\*현가구수에다 추가된 가구수의 합

\*\*총회결정: 해녀 능력별 차등

촌락별 어장환경과 해녀수 그리고 洞所有의 공공재산의 차이로 입어조건이 다르나(〈표 3〉 참조) 전입자들에게 입어자격을 부여하게 될 때 첫째, 해당지역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본인소유의 주택을 가져야 하며, 洞加入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기본거주 기간의

설정은 새로운 전입자로 하여금 환경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정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둘째, 무연고의 전입자에게는 동가입비와 입어료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어장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생계수단의 확보를 위해 입어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가장 어업소득이 높은 비양동에서는 入參費와 入漁料를 분리해서 납부하게 하며, 1개월 이상 상주하여 패조류 채취와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 입어권을 상실시키고 있다. 셋째, 툃과 천초(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조류와 소라 등의 패류에 대해 禁採期間과 許採期間을 설정하여 어장을 감시하는 방법을 통해 무분별한 채취를 금하고 동시에 어장자원의 재생산에 필요한 어장청소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공동체적 성격은 패조류의 채취·분배방식에서도 나타나 미역·툃·천초·패류를 채취할 때에는 평등하게 가구당 1명씩 참여하며, 성원간에 합의된 특정일을 선택하여 공동으로 채취한다. 특히 툃만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갯가에서 채취가 되므로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마을운영 비용을 확보하는 해조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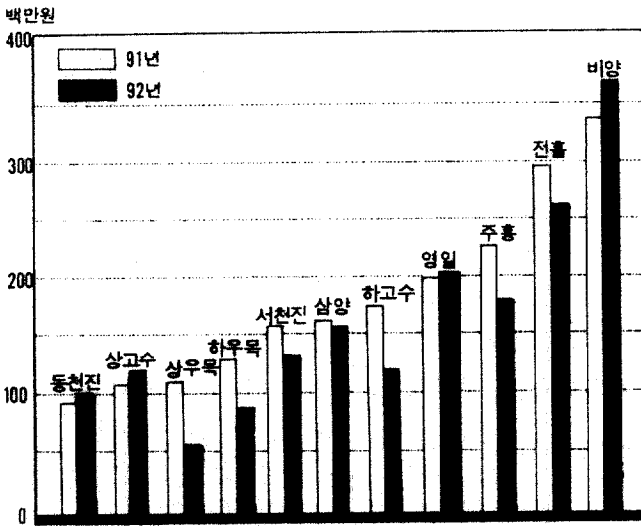
그러나 앞으로 해녀감소가 급진전될 경우 패조류 채취에 적용되는 공동체적 규정이 철폐되고, 잠수기를 이용한 채취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沿岸漁場에 종사하는 영세어민들에게 잠수기를 이용한 새로운 채취방법의 도입은 어민층의 분해를 촉진시켜 잠재적 실업인구를 現代化함으로써(최재울, 1991 : 293) 村落共同體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 (2) 패조류 채취업의 변화

농촌으로 출발한 우도의 경우 해조류는 본래 비료로서 농업생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해조류 특히 天草(우뭇가사리)가 寒天의 재료로 급속히 상품화되면서 천초채취에 종사하는 해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업기능이 우세한 지역현상을 노출시켰다.

넓미역(다시마의 일종)은 1970년대까지 하계에 산호초가 군생하는 주흥동·상·하우목동·서천진동 해안에서 風船을 이용해 배위에서 갈퀴로 채취하거나 잠수하여 배어내었다. 미역은 공동으로 채취되던 해조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 양식미역이 등장하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공동채취의 대상이 툃과 우뭇가사리로 변화되었다. 패류는 자원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영일동, 비양동, 동천진동 해안에서 양식되어 공동으로 채취되고 있다.

〈그림 4〉 패조류의 동별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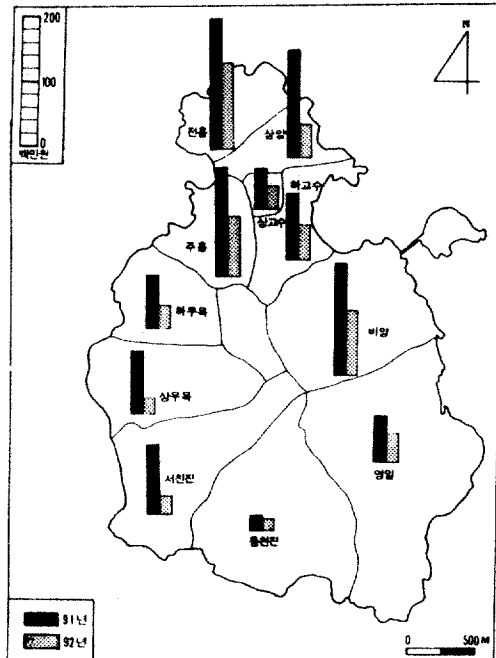
우도 어촌경제의 주요 소득원인 패조류의 판매액은 1984년에 1억 천 3백 만원에서 1991년에는 18억 9천 만원까지 증가하였다. 판매액의 급격한 증가는 잠수복의 도입으로 노동량이 많아져 채취량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양식기술의 도입과 패조류의 일본수출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판매소득은 지역차를 보여 ① 비양동 ② 전흘동 ③ 영일동 순으로 많은데(〈그림 4〉 참조), 이들 지역은 해조류 번식에 岩石海岸이 발달하고 공동어장이 넓으며, 180(33.3%)명의 해녀가 집중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수입원으로 가장 소득이 많은 것은(1992년 기준) 천초이다. 패조류별 소득구조는 ① 천초(6억 2천 만원) ② 기타 해조류(4억 7백 만원) ③ 전복류(2억 6천 만원) ④ 툇(1억 9천 만원) ⑤ 감태(1억 6천 만원)이다. 우뚝가사리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1991년 12억에 비해 6억 원이 감소하여 총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1991년)에서 35%로 하락하였다(〈그림 5〉 참조).

〈그림 5〉 우뚝가사리의 동별 판매액



### (3) 해녀의 출륙이동

패조류 채취업의 변화는 出陸(稼)海女(“잠수벌이”)에서도 나타났다. 우도 해녀들은 19C 말부터 한반도 해안·도서지역으로 패조류를 채취하기 위한 주기적인 이동을 하였다. 1915년 경에는 약 400명 정도가 출륙하였는데(석주명, 1968 : 202) 특히 전남 도서지방(김정호, 1991 : 187-190), 거제도, 부산의 영도, 경북 해안지방, 일본 해안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출륙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1960년대 이전에는 한반도 해안에서 패조류 채취에 대한 전용권이 설정되지 않았던 때문이다(원학회, 1985 : 181). 봄에 출발하여 가을에 귀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출륙지역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조류 판매업자들이 錢主(客主)를 보내어 해녀들을 고용해 갔다. 출륙지역으로는 청진, 원산, 삼척, 주문진, 구룡포, 감포, 영도, 거제도, 연화도, 완도, 보길도, 백령도, 경북 삼정, 울릉도, 부산, 여수, 일본 서해안 등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북한과 일본으로의 출륙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됨에 따라 출륙지역이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경제력의 향상과 해녀의 노령화 그리고 핵가족 하에서 가게를 운영해야 하므로 출륙해녀는 대부분 소멸되어 전체적으로 10 여명 내외에 불과하다.

### 3) 농작물 생산

어업과는 달리 농업의 경우 인구감소는 오히려 노동력 투하가 적은 새로운 농작물의 도입을 자극하였고, 농기계의 질량적 개선과 기계화 영농단(“하늘이 영농단”)을 출현시켰다. 촌락의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농경지는 1992년에 총면적 6,042ha 중 4,302ha로 7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1973년 5,041ha(75%)에 비해 감소된 것이다.

〈표 4〉 리별 및 가구당 경지면적(1993년)

리 별	경지면적(평)	구성비(%)	가구당(평)
서 광 리	350,271	29.7	2,736
조 일 리	333,974	28.3	2,212
천 진 리	254,696	21.6	1,794
오 봉 리	239,572	20.4	1,152
우 도 면	1,178,513	100.0	1,874

리별 경지면적의 크기는 ①서광리 ② 조일리 ③천진리 ④ 오봉리 순이며, 천진리는 산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봉리는 토지의 절대면적이 작은 상태에서 5개 촌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촌락에 비해 경지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표 4〉 참조), 우도의 가구당 평균경지면적도 1,874평으로 영세하다.

농작물은 동작물로 맥류, 감자 그리고 하작물로 고구마, 땅콩 등이 재배되며, 고구마·맥주맥은 재배면적이 감소된 반면 땅콩·마늘·감자는 증가되었다(〈그림 6〉 참조).

마늘은 사질토양이 분포되고 있는 비양동과 영일동을 중심으로 특작화되어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다. 특별한 재배기술과 많은 노동력 투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다수의 도서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전경수, 한상복, 1992) 땅콩이 천진리 지역을 중심으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풍우발생이 많은 도서환경 즉 지속적인 해풍과 雨水가 土壤風蝕과 表土移動에 영향을 주므로(형기주, 1993) 땅콩이 適地適作의 작물로 선택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농작물 조수익은 점차 증가하여 1988년에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였던 소득구조가 1992년에는 농업소득이 50%로 증가한 반면 어업소득은 50%로 감소하여 소득면에서 전형적인 반농반어촌에

해당된다. ① 땅콩(686 백만원) ② 마늘(463 백만원) ③ 맥류(360 백만원) ④ 고구마(292 백만원) 순으로 땅콩이 조수익 면에서 높게 나타나 (1992년) 재배면적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그림 6〉 농작물 재배면적의 변화

### 3. 가옥구조의 변화

촌락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땅과 인간이 결합한 결과로 나타난 일차적 경관으로(김기혁, 1993 : 238) 가옥, 경지, 도로, 돌담, 묘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촌락의 주축적 구성요소로서 가옥은 지역성을 해명하는 지표인 동시에 인간생활의 최소공간이다(大島襄二 외, 1989 : 267).

한편, 가옥은 가옥분포의 외곽선으로 표현되는 촌락형태(settlement pattern)의 변형에 영향을 주어 인구가 감소되어 폐가가 발생함으로써

垡地가 농경지로 전용됨에 따라 거주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 상우목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철거된 가옥이 전체 46가옥 중 19가옥으로 거주공간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 〈그림 7〉 거주공간의 변화 : 상우목동

가옥은 屋蓋, 壁體, 배치형태와 같은 입체구조 뿐만 아니라 間과 棟配置 등 평면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옥을 구성하는 지붕재료는 대부분 새(茅)에서 침수확보에 유리한 슬레이트로 개량되었고(497동으로 90%), 외벽재료 역시 자연석에서 시멘트블럭으로 변하고 있다.

평면구조 중 가장 단조로운 가옥유형은 협소한 대지 위에 세워진 2間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間 배치는 상방(마루)공간이 없이 온돌방과 정제 등을 골격으로 하여 여기에 欄干을 부속시키고 있다. 우도 전체로 보아 2間配置 가옥은 11棟에 불과하며, 대부분 老夫婦, 老婆가 거주하는 가옥이다.

2間 구조에서 발전한 3間형은 2間 구조에다 온돌방과 정제 사이에

상방을 배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겹집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전통적인 가옥구조에서는 상방에 祭器와 食器를 보관하는 장방이 나타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3間 구조는 425棟으로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우도 가옥의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多室構造인 4間형 가옥은 방구조가 추가되어 방-상방-방-정재 형태를 취한다. 전체 98 棟으로 18%를 차지하며 특히 대지가 넓게 확보된 하우목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가옥외부에 배치되었던 공간 구조(욕실, 화장실)가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옥내로 배치되어 평면구조가 변화되었다.

〈표 5〉 가옥의 間구조

(단위: 가옥수)

동 별	2間	3間	4間	5間	동 별	2間	3間	4間	5間
영 일	1	47	6	0	주 흥	1	32	5	0
비 양	3	72	9	0	하우목	0	24	30	1
하고수	2	27	7	0	상우목	2	16	9	0
상고수	0	25	7	0	서천진	0	56	3	0
삼 양	1	27	8	0	동천진	1	61	2	0
전 흘	0	37	12	0					
합 계	7	235	49	0	합 계	4	189	49	1

지형·기후조건과 사회·경제적 상태가 반영되는 도서지역의 가옥 배치형태는 直家型(一, 二字型)과 曲家型(ㄱ, ㄷ, ㄴ字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성대, 1990: 22-26). 이중 직가형 가옥은 241 棟으로 45%, 곡가형 가옥은 292 棟으로 55%를 차지하여 곡가형 가옥이 많다(〈표 6〉 참조).

꼭가형 가옥구조는 부속건물이 안채(內棟)와 병립(연접)되어 형성된 것으로 비교적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대지의 다각적 활용을 시도한 데서 발생한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부속건물은 자연환경의 영향과 그 대응에 의한 결과로서의 適應景觀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태, 생업양식을 표현해 준다(송성대, 1990 : 25).

〈표 6〉 가옥의 배치형태

(단위 : 가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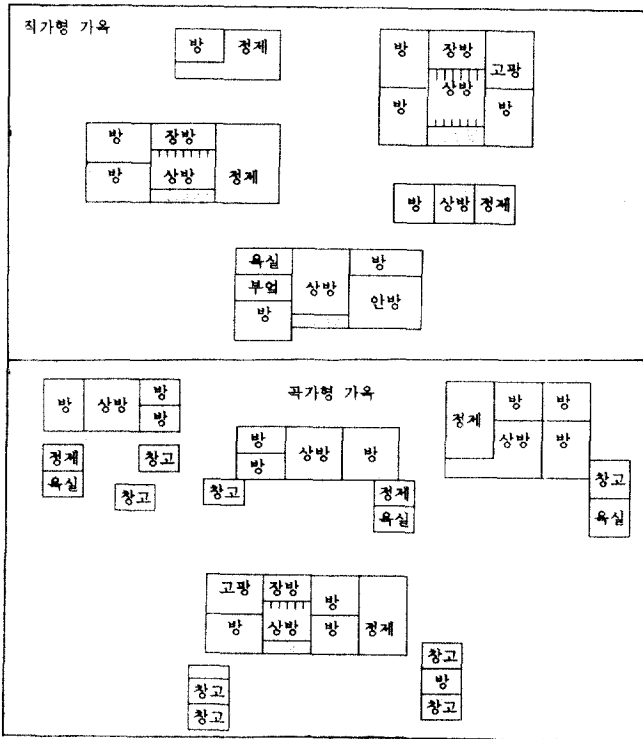
동 별	一字	二字	ㄱ字	ㄷ字	ㅁ字	동 별	一字	二字	ㄱ字	ㄷ字	ㅁ字
영 일	2	14	21	15	2	주 흥	11	10	15	3	0
비 양	16	16	33	19	0	하우목	13	12	24	6	0
하고수	9	7	14	6	0	상우목	5	6	10	6	0
상고수	16	4	11	1	0	서천진	2	16	30	11	0
삼 양	22	3	10	1	0	동천진	20	12	23	6	3
전 흘	21	4	23	3	0						
합 계	86	48	110	45	2	합 계	51	56	102	32	3

가옥구조는 인구감소, 관광객의 유입,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점차 변형되어 一字型은 ‘기능집중형’ 일자형, ㄱ자형, ㄷ자형 가옥으로 변형되고 있다. ‘기능집중형’ 일자형 가옥은 안채와 분리되어 있던 화장실과 욕실을 가옥내부로 배치시켜 만든 것으로 가옥 내부의 공간구조 변화에 해당된다. ㄱ자형 가옥으로의 변화는 부엌·욕실·창고를 신축하여 안채에 직각으로 연접 또는 분립시켜 만들 때 나타나며, ㄷ자형 가옥은 ㄱ자형에다 부속건물로 창고를 증설 배치한 경우이다(〈그림 8〉 참조).

二字型 가옥은 바깥채를 헐어 부엌·욕실·화장실을 안채 내부로 배치시켜 一字型으로 변하는 경우, 부엌이나 욕실을 신축하여 二字型에 연접시켜 ㄷ자형으로 변형되는 경우, 또는 부엌·욕실·화장실을

안채와 직각으로 배치시켜 ㄱ자형 가옥으로 변형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8〉 가옥의 평면구조와 동배치의 변화



#### IV. 맺 음 말

본 연구는 남해안 도서지역 어촌연구의 전단계로 제주도의 우도를 사례로 도서어촌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인구구조, 생산구조, 가옥구조를 중심으로 도서어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어촌의 변천과정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어촌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해어촌도 유형을 분류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도 어촌은 19C 중엽에 농촌으로 출발한 촌락으로 어업기능이 강화되면서 어촌으로 변모하였다. 패조류의 채취를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하는 우도 어촌은 인구감소로 인해 공동체적 성격과 어업활동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입어관행과 관련된 어업문화적 특질이 잔존하고 있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제주도과 유사한 어업문화가 존재하는 일본 어촌지역을 비교분석하여 제주도 어업문화의 원형을 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다른 도서어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도 어촌은 인구전출의 증가에 수반된 현상들 즉 인구감소로 인한 촌락유지조직과 교육조직의 약화 그리고 거주공간의 축소와 어업기능의 약화 등이 공간상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해녀감소로 인한 패조류 채취업의 쇠퇴는 우도의 어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인구유출을 예방함과 동시에 어촌부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촌유지 및 개발정책이 요청된다.

첫째, 거주환경의 개선 특히 造林과 식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저수지에 의존하는 식수공급 정책은 한계성을 지니게 되므로 한림읍의 飛陽島와 같이 송수관을 海底로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아울러 해풍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우도가 미래의 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을 창출하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島嶼型 產業으로 觀光漁業의 본격적 도입과 성산일출봉과 연계되는 관광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 강남주, 1991, 「남해의 민속문화」, 등지.
- 고상룡, 1967, “한국의 입어관행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혁, 1993, “치좀의 촌락이론”,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 김상헌, 1601, 「남사록」, 김희동(역), 1992, 영가문화사.
- 김일기, 198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김정호, 1991, 「섬·섬사람」, 호남문화사.
- 박경용, 1992, “삼천포시 어촌의 경제와 발전전략”,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전경수(편), 집문당.
- 박광순, 1987, 「한국어업경제사연구」, 유품출판사.
- 부영성, 1986, 「舊左邑誌」.
- 북제주군, 1987, 「北濟州郡誌」.
- 석주명, 1968, 「제주도수필」, 보진재.
- 송성대, 1990,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 박사논문.
- 신순호, 1983,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논문집」, 제16집.
- 오홍석, 1983, “법성포구의 어촌연구”, 「지리학논총」, 제10호.
- \_\_\_\_\_, 1989,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 원학회, 1985, “제주도 해녀어업의 전개”, 「지리학연구」, 제10집.
- 이청규·강창언, 1993, “우도면의 유적과 유물”, 「牛島面誌」(未刊行本)
- 전경수·한상복, 1992, 「한국의 낙도민속지」, 집문당.
- 정진술, 1992, “한국선사시대 해상이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2집.
- 조맹수, 1986, 「제주의 섬」, 조약돌.
-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1911, 「한국수산지」, 제3집.

- 조선총독부 측지부, 1918, 濟州島 城山圖葉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탐라문헌집」.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도부락지(III)」.
- 최기엽, 1993,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전환기의 한국지리」,  
교학사.
- 최길성, 1992,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변용(상)」, 아세아문화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耽羅巡歷圖」(李衡祥, 1702), 一志社.
- 한대현, 1976, “연안어촌의 관광지화에 관한 연구”, 「강릉교대 논문  
집」, 제8집
- 형기주, 1993, 「농업지리학」, 법문사.
- 大島襄二(외), 1989, 「文化地理學」, 古今書院.
- 石井英也, 1992, 「地域變化とその構造」, 二宮書店.
- 柿本典昭, 1987, 「漁村研究」, 大明堂.
- 佐藤甚次郎, 1972, 「統計圖表と分布圖」, 古今書院.
- 中村和郎·手塚 章·石井英也, 1991, 「地域と景觀」, 古今書院.
- 泉靖一, 1971,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 Clark, John I., 1972, *Population Geography*, Pergamon Press.
- Hopkinson, Michael, 1981, *The Geography of Settlement*, Oliver and  
Boyd.
- Monkhouse, F.J. and Wilkinson, H. R., 1978, *Maps and Diagrams*,  
Methuen.

## Process of Settlement Establishment and Transformation in Udo Fishing Villages

Kang, Man-Ik

Department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

Udo settlement began in 1842 when people obtained forest clearing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hanging situations of Udo fishing villages. Looking at population structure, Udo shows a female predominance. Rapid depopulation has occurred due to emigration for the purpose of occupation and education, which began in 1980.

Fishery is composed of fisherboat fishing and seaweeds gathering. Fisherboat fishing production has been low, compared with seaweeds production gathered by women divers(Haenyeo). Recently, however, the number of women divers is decreasing and, therefore, seaweeds gathering may have declined after 10 years. Agriculture is advancing since 1990 an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venue are increasing continuously. To economize labor force, as a new crop, soil beans were introduced in 1989.

Settlement pattern is composed of houses, arable lands, roads etc. Houses have many kinds of functions such as places for storing fishing tools and repairing nets. The house structure of Udo fishing villages has changed. Also the arrangement form of a house and the inner space structure in a house have changed in pursuit of convenience.